

# 아카시아는 독수일까?

들뜰에서 줌는 과학  
김준민 저.

## 아카시아에 대한 오해

나는 아카시아를 사랑한다. 나른한 봄날이 눈 깜짝할 새에 다 지나가고 어느덧 반소매 옷이 그리워지는 5월이 되면, 한적한 골목이나 동네 뒷산을 산책할 때 달콤하고 기분 좋은 꽃향기가 전신을 감싸곤 한다. 젊은 아가씨들의 향수로 사랑받는 아카시아향이다. 아카시아꽃이 없는 5월은 마치 라일락 꽃 없는 4월처럼 상상만 해도 무미건조하다. 아카시아 향기는 우리를 극한 분위기 속으로 젖어들게 하고, 또 꿀을 찾는 벌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먹을거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카시아처럼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나무도 별로 없다. 먼저 그 오해부터 밝혀보기로 하자.

벌써 오래전 일이기도 하지만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인부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베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아카시아 때문에 소나무가 자라지 못해서라는 것이다. 나는 바로 책임자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대학 캠퍼스에는 무슨 나무건 하루빨리 자라서 푸른 숲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급하오. 아카시아야말로 다른 어떤 나무보다 더 빨리 자라서 이 캠퍼스에 좋은 숲을 마련할 터인데, 잘 자라지 못하는 소나무 한그루를 위해서 아카시아를 그렇게 함부로 베어내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오”

이런 내 충고가 받아들여져서 적어도 우리 대학에서는 아카시아가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1980년대에 내가 한국자연보존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였다. 하루는 조선일보에 “아카시아가 주위에 있는 다른 나무를 죽게 하는 독수(毒樹)이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사가 커다랗게 실린 적이 있었다. 마음속으로 몹시 불쾌했던 나는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을 적어서 사무실 직원에게 전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오거든 꼭 내게로 안내하라고 일러두었다. 자연보존협회에는 평소에도 적지 않은 수의 기자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 기자를 꼭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내 방으로 안내되었다. 내가 만나려던 그 기자였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다그쳤다.

“당신이 아카시아를 나쁜 나무로 몰아붙이고 있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아카시아가 다른 나무들보다 성장이 빨라서 그렇다는데 성장이 빠른 것이 어찌하여 나쁘오?”

한참을 꾸물거리며 변명거리를 찾던 그는 달리 이유를 댈 수 없자 마지막으로 내게 이렇게 되물었다.

“아카시아가 그렇게 빨리 자라서 온 산이 아카시아로 뒤덮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아, 아카시아는 300미터 이상의 고지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네” 이런 내 답변에 그는 “잘못했습니다. 정정 기사를 내겠습니다.” 라고 사과 했다

나는 굳이 정정 기사까지는 낼 필요는 없고,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아카시아가 우리나라에는 아주 요긴한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만이라고 곱게 타일러 보냈다.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임업인 한 사람이 나를 보고 아카시아를 독수라고 고발한 기사를 읽어보았느냐고 묻기에 그 기사를 쓴 장본인을 만나 타일렀다고 했더니, 그 기자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못 흥분했다. 이런 일화처럼 일반인들은 아카시아를 나쁜 나무로 여겨서 특히면 베어버리기 일쑤다. 아카시아 나무는 노랫말에서나 사랑을 받지 실생활에서는 양봉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왜 그렇게 아카시아가 천대받는 것일까?

## 아카시아가 아카시아가 아닌 이유

아카시아 어린 가지에는 가시가 있어서 다루기가 몹시 불편하다. 아카시아는 1년에 2~3미터나 자라므로 장작으로 쓰기 딱 좋은데 가시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뿌리가 옆으로 마구 뻗어나가서 주변 논밭에 침입하고 따스한 양지쪽을 좋아해서 자주 돌보지 않는 무덤가에서는 몇 미터씩 자라나기도 한다. 아카시아의 놀라운 성장 속도와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특성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카시아를 조상의 무덤을 해치는 나쁜 나무로 여겼던 나머지 이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1970년대에 어떤 잡지에는 “아카시아 어린 나무(유목)를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까지 하였다. 그 논문에는 어린 나무에 농약을 뿌려서 죽이는 방법, 쥘이나 거적을 덮어서 죽이는 방법 등 몇 가지가 실려 있었는데, 아카시아의 생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쓴 것이 분명해보였다.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면 어떤 나무든 무조건 없애버려야 한다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그 나무는 사실상 아카시아가 아니다. 이것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원래 아카시아 나무는 정작 따로 있다는 것이다. 식물 분류체계상 아카시아는 콩과라는 큰 집단에 속하는데 콩과식물은 뿌리에 혹을 가져서 질소고정을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 콩과에 아카시아속이라는 하위 분류군에 속하는 나무들이 진짜 아카시아 나무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나무는? 그것은 같은 콩과에 속하기는 하지만 아카시아속과 전혀 별개인 아까시나무속(Robinia)으로 본래 명칭이 아까시나무이다. 아카시아속 나무들은 원산지가 오스트레일리아로 아프리카, 아라비아, 미국 등 열대. 아열대에 널리 분포하는 데 반해서 아까시나무는 미국이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 19세기 말엽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뛰어난 질소고정 능력

아카시아는 뿌리에서 자라는 뿌리혹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또 성장이 빠르고 뿌리로도 번식이 가능해 황폐화된 산림을 신속히 회복시키는 데는 이것처럼 좋은 수종이 없다. 콩과식물의 특성상 수명이 짧은 것이 흠이라면 흠인데 험벗은 산을 순식간에 푸르게 만드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산이 푸르러지면 자연히 토양도 비옥해지고, 그러면 비옥한 토양에서 다른 수종의 나무들, 예컨대 참나무가 서서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 1980년대 미국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은 지 4년 된 아카시아 숲에서 토양에 축적되는 질소의 양이 헥타르당 연간 30킬로그램에 달했다고 한다. 아카시아 나무가 성장에 필요한 질소를 충분히 사용한 후에도 여분의 질소를 그만큼이나 토양에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미국은 지나친 개발로 인해 황폐화된 삼림이 아주 많았는데 이런 훼손된 삼림의 복구와 복원에 아카시아가 톡톡히 효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현재도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유실된 토지나 채굴이 중단된 광산 지역의 복원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카시아가 가장 먼저 이식되고 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떠할까? 아카시아 종자가 유럽에 처음 소개된 것은 1600년대 초엽이며 그후 전 유럽과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나라들에 널리 확산되었다. 그 결과 아카시아 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헥타를 이상의 산림을 구성해, 활엽수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유카리나무(유칼립투스) 다음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아카시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80년경이라고 생각된다. 1877년 일본에 아카시아가 들어왔고 그후 독일인이 아카시아를 중국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에 심어서 녹화에 성공한 것 본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한다. 요즈음 사람들에게는 낯선 단어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방공사(砂防工事)란 말이 자주 쓰였다. 예전에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서 큰비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심하면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 사방공사는 그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말하는데, 성장이 빠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아카시아가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하자만 아카시아가 뿌리를 사방으로 펼쳐 넓은 지표에서 양분을 흡수한다는 특성을 무시하고 낙엽을 채취한다는 핑계로 미처 다 자라지 못한 아카시아 숲의 토양을 함부로 굽는 등 숲을 지나치게 훼손한 결과 아카시아 식림은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다.

## 아카시아는 어디에 쓰이나?

아카시아 나무는 단단해서 각종 건축용 자재로 쓰이고 장작으로도 아주 유용하다. 또 꽃은 아주 향기로운 꿀을 담뱃담고 있어서 양봉가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여기에서 추출한 아카시아꿀은 풍미와 효능이 으뜸가는 우수한 천연식품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아카시아 용도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카시아는 어떻게 더 활용될 수 있을까? 최근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때문에 넓은 산지

가 황폐화 되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여름철 기우시에는 토사가 흘러 내리고 산사태가 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원래의 푸른 산으로 회복시켜야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심는 수종으로 적합한 것이 바로 아카시아이다. 바닥이 온통 드러난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자라고, 또 햇빛이 많이 내리쬐는 곳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뿌리가 사방으로 넓게 퍼져서 토양 소실을 잘 막아주고, 성장도 빨라서 불과 몇 년 만에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등 아카시아는 그야말로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되살리는데 가장 적합한 구원투수인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산림을 복원할 목적으로 아카시아를 심고자 할때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아카시아는 표고 300미터 이상의 산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동네 야산이 아닌 높은 산의 산림을 복원할 때는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일까?

아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전공학 기법을 이용한다면 약간의 노력으로 30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수종 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품종을 개발할 때 따르는 이점이 한가지 더 있다. 식물은 고도가 30미터씩 높아질수록 개화가 하루씩 늦어지기 때문에 해발 300미터의 산에서 자라는 아카시아는 평지에서 자라는 아카시아보다 10일이나 개화가 늦어지게 된다. 만약 해발 500미터에서도 자랄 수 있는 아카시아 품종이 있다면 꽃피는 기간이 보름 이상 늘어나서 양봉가들에게는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아카시아는 이처럼 산물이 발생한 장소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목재를 베어낸 곳, 버려진 풀밭, 황폐한 길옆 등에서도 왕성하게 자란다. 일단 한곳에 정착한 아카시아 나무는 빠른 성장으로 불과 3년만에 그 높이가 8미터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자랑하는 아카시아도 지력이 좋은 곳을 제외하고는 10~20년이 지나면 자연히 쇠락하게 된다. 아카시아 줄기를 파고드는 해충으로 인한 고사율이 높아서 서서히 쇠퇴하는데, 어느새 함께 자란 참나무 계열의 나무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다. 아카시아 줄기가 뻣뻣하지 못해서 그 줄기 틈으로 다른 나무들이 햇빛을 담뿍 받고 쉽게 자랄수 있는 것도 아카시아의 쇠퇴를 부추기는 다른 한 원인이 된다. 어쨌든 인위적 간섭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아카시아 숲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자연히 사라지고 그 대신 우리나라 산림의 극상림인 참나무 숲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집 가까운 야산에서 아카시아 꽃을 관찰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5년 전, 10년 전 그 야산의 모습을 머리에 그려볼 수 있는가? 우리나라 야산에서 아카시아가 가장 흔했던 때는 벌써 여러 해 전이다. 이제 대부분 야산에서 아카시아는 보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숲들이 그만큼 참나무 숲으로 빨리 변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스런 삼림의 천이현상을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보고 있는 셈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앞으로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여러 측면에서 무수히 많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산림녹화사업이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면서 산림을 마구 훼손한 나머지 근래에는 매년 산사태와 토사유출의 재난을 겪고 있다.

마치 1960년대 우리나라처럼 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산림복원이 시급하다고 하겠는데 이때 ‘혈땀은 산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물론 아카시아 나무이다. 우리가 앞으로도 아카시아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